“다비, 국가무형유산 가치 인정받아야”

다비작법보존회, 8월 24일 제1회 학술대회

보광 스님 “무형문화재 발의를”
‘다비 작법 상조회’ 설치 제안도
“전승자 양성…포교의 한 방편”
진우 스님 “전승 노력 적극 지원”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입적한 스님의 법구를 화장하는 불교 장례의식으로 삼국시대 불교 전래와 더불어 자연스레 한국 전통문화로 정착해 전승된 다비. 다비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조명하고 다비의 현 실태와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다비작법보존회(회장 현법)는 8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공동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다비의 가치와 전승’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비는 단순히 육신을 태우는 화장이 아니라 죽음의 순간조차 깨달음의 기회로 맞이하는 한국 승가의 수행 정신이 담겨 있다. 근래에 와서 다비는 비정례적으로 일부 큰스님의 입적 때만 봉행됨에 따라 전수자가 부족하고 설행 기록도 부재해 전승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이번 학술대회는 다비의 전승을 위해 학술적 · 문화유산적 가치를 조명하고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초석을 만들고자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들은 “사찰마다 독자적인 방식으로 설행되던 다비가 현재 전수자가 드물어 전승이 끊길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보존과 전승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비의 학술적 · 문화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불교문화유산을 넘어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특히 조계종 호계원장 보광 스님은 ‘불교장례문화 보존 가치’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불교장례의식 및 다비식을 무형문화재로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광 스님은 “우리나라 전통 장례문화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 15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불교의 다비의식이 원형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우리 장례의식 중 오직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불교 다비의식마저 사라져버린다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장례의식은 완전히 없어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비의식만을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불교장례의식과 명정(銘旌)도 보존하고 다비의식과 함께 아우르는 전반적인 불교장례의식을 무형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면서 “전통종단인 조계종단과 긴밀한 교류로 공동 연구해 종단적인 차원에서 불교장례의식 및 다비식을 무형문화재로 발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황근식 동국대 교수는 발제 ‘다비의 현 실태와 개선방향’에서 종단 총무원 산하 부설 혹은 독립된 기관으로 ‘다비작법 상조회’의 설치 운영 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다비 작법 상조회’ 설치를 통해 전통 다비의 실효성 있는 전승과 보존, 지속적인 발굴 및 복원, 다비 의례 연구뿐 아니라 승려복지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스님들의 다비 지원금 및 복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

이와 함께 △재가자의 불교식 장례 진행을 통한 관심과 포교 △다비와 불교식 장례를 통한 화합과 단합의 구심점 역할 △불교 전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설치와 장례지도사 및 다비 전승자 양성 △불교 장례 및 다비 의례 연구로 통일된 불교 의례 보급 △재가자 중 무연고자나 기초생활수급자의 무료 장례지원 등을 기대효과로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학술대회에서는 조준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초기불교의 다비’를, 구미래 불교민속연구소장이 ‘한국 장례문화의 흐름과 다비’를, 이성운 동방대학교 교수가 ‘귀환의 몸짓에 밴 언어의 미학’을 주제로 발제했다.

학술대회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포교부장 선업 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사부대중의 원력과 정진으로 다비가 보존하고 전승해 나가야 할 우리의 소중한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길 바란다”면서 “종단의 책임자로서 소중한 문화유산이 단절되지 않고 후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다비작법보존회는 불교전통문화 다비의 보존과 계승이 불교의 당면 과제라는 인식하에 2022년 5월 다비작법보존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총 11차례 실무자 회의, 2차례 상임위원 소재 사찰 방문, 3차례 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3년 3월 30일 발족식을 가졌다. 이번 학술대회를 기점으로 향후 다양한 학술활동 및 전승자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구족계 안 받아온 스님들 구제 될까

‘특별구족계 수계산림법’ 조계종 총무원 입법예고

개인적인 사유로 장기간 구족계를 수지하지 않고 예비승인 사미 · 사미니계에 머물러 있는 스님들을 위해 조계종이 특별구족계 수계산림 도입에 나섰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은 사미 · 사미니계 수지 후 오랫동안 구족계를 수지하지 않은 스님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구족계 수계산림 시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특별법은 여법한 수행풍토 환경을 조성하고, 특별법 대상이 되는 스님들이 종단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종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구족계 수계 대상자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또는 1991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미 · 사미니계를 수지한 스님이다. 이처럼 구분한 것은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계를 수지한 스님은 종사 이하의 법계까지 자동품수하도록 법계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후 출가자는 현행법상 각급 승가고시에 합격해야 법계 승급이 가능하다.

수계대상자가 특별구족계를 받으려면 종단 사찰에서 20년 이상 염불 · 주력 · 포교 등의 수행하고, 계단법 제19조 및 승려법 제8조에 따라 구족계 수계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한 재적 교구본사주지 추천을 받아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에 지원해 계단위원회 갈마를 거쳐 단일계단에서 품수할 수 있다.

다만 특별법에 의해 구족계를 수지한 비구 · 비구니의 승랍은 비구 · 비구니계 수계일로부터 기산한다. 현행 승려법에서는 비구 · 비구니계 수지자에 한해 승랍을 사미 · 사미니계 수계일로부터 기산하고 있다. 이외에도 특별구족계 수지자는 법계 중덕 · 정덕까지만 품수할 수 있도록 차이를 뒀다. 또한 제정안은 부칙을 통해 특별법의 효력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이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것을 방지했다.

조계종은 총무원은 특별법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종무회의를 거쳐 9월 12일 개원하는 제228회 중앙종회 임시회에 부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열린 제227회 중앙종회 임시회에 공개된 종책질의에 따르면 1991년 1월 1일 이후 사미(니)계 수계 후 구족계를 수지하지 않은 스님은 155명이다. 윤호섭 기자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단독 출마로 사실상 당선

용주사 탄원 · 직능 허허 스님



탄원 스님



허허 스님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 첫 보궐선거에서 제2교구 용주사에 탄원 스님이, 직능대표 문화분야에 허허 스님이 사실상 당선됐다. 두 스님 모두 앞서 단독 후보로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격심사만 거치면 되는 상황이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세영)는 8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종회분과회의실에서 제396차 회의를 열고, 제18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탄원 스님과 허허 스님의 자격에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탄원 스님은 9월 7일 예정된 보궐선거일과 관계없이 무투표 당선이, 허허 스님도 9월 4일 직능대표선출위원회에서 당선이 확정된다. 윤호섭 기자

아미타요양병원 향한 ‘자비희사’

대전 구암사 · 한태수 종무원 쾌척
아들 결혼식 축의금 회향해 ‘눈길’

조계종 직영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을 후원하는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 구암사 회주 북천 스님과 주지 설해 스님(중앙종회의원)은 8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후원금을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금 전달은 최근 ‘재단법인 해운’을 조계종에 등록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재단법인 해운을 종단 등록하며 회주 북천 스님이 지역에서 포교에 진력하고 있는 이야기도 잘 전해 들었다”면서 “특히 봉안당을 운영하며 납골문화 개선과 인식전환을 위해 힘써온 것으로 안다”고 격려했다. 이어 납골문화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진우 스님은 “종단 차원에서도 납골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수조사 중”이라면서 “기회가 되면 구암사를 방문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북천 스님은 “1999년부터 대전시와 유성구의 요청으로 대전광역시 허가 제1호 봉안당을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불자들의 마지막을 위해 사찰 납골당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구암사 회주 북천 스님과 주지 설해 스님이 조계종 직영 아미타불교요양병원에 1000만원을 후원했다.

북천 스님은 구암사에서 매주 수요일 ‘행복해지는 수요 명상법회’를 운영하며 주지 설해 스님과 사부대중 공동체가 참여하는 명상센터를 기획하고 있다. 또 신도회 산하 나눔회를 중심으로 국가 보조금 없이 연간 30만 명, 매일 700~1000명에게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구암사 나눔의집 나마스테’는 1987년부터 호국대원사에서 매주 일요일 급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현충원에서 연중무휴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가족 및 참배객에게 매일 점심 무료 국수공양을 실천하며 지역을 밝히고 있다.

앞서 조계종 총무원 종무원 한태수 기사는 8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총무부장실에서 승려복지 대표이사 호산 스님에게 조계종 직영 아미타불교요양병원에 후원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한태수 기사는 지난달 아들 결혼식을 통해 받았던 축의금을 후원금으로 전달하며 “스님들의 수행과 치료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2003년 조계종 총무원에 입사한 한태수 기사는 “20년 동안 종단에 근무하며 자녀를 키웠고 종단 장학금도 받으며 훌륭하게 성장, 공군 조종사가 된 아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고자 후원금을 내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은호 기자

감사의 말씀

귀의삼보하옵고,

법체 청안하심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금번 한국불교태고종 태고총림 선암사 선원장 범청당 상명 대종사의 영결식에 원근을 마다않고 찾아와 조문해주시거나 직접 찾아오지는 못했지만 세연을 마친 스님의 가시는 길에 극락왕생을 발원해주신 육부대중 여러분께 지면으로나마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사방팔면에서 보내주신 각계 원로와 대덕 스님들의 심려와 조문 덕에 여법하게 영결식과 다비식을 마치게 된 것을 널리 알려드리며 향후 범청당 상명 대종사의 유지와 뜻을 기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상명 대종사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함께 해주신 육부대중께 감사드립니다.

불기 2567(2023)년 8월 21일

태고총림 선암사 주지 **정허 시각** 합장

범청당 상명문도회장 **도허 지각** 합장